

# “일하는 비구니회’ 만들겠습니다”

##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법회 봉행

### 비구니 위상 강화 등 기대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으로 육문 스님이 취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에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선학원 정상화추진위원장 범등 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총무실장,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육문 스님은 선거 공약 케치프라이드 내세운 ‘일하는 비구니회’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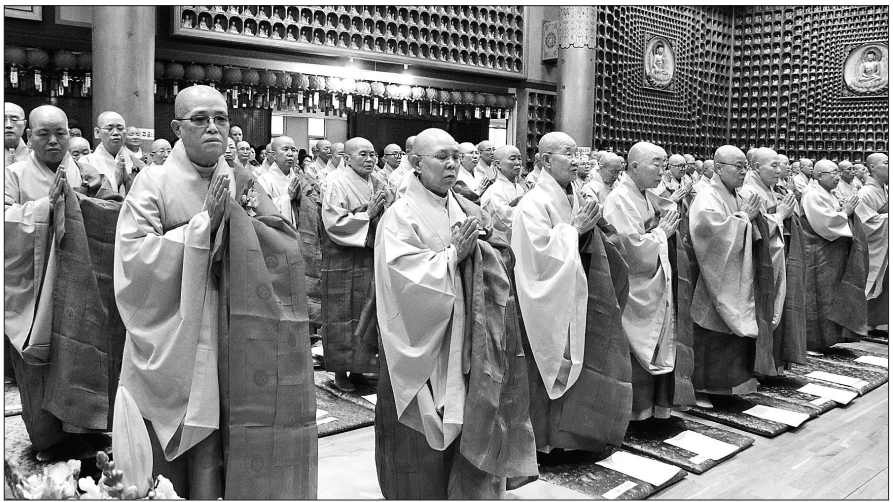
육문 스님은 “그간 비구니회는 회관 건립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구성점이 되지 못한 점, 아직도 열악한 비구니 위상 등 반성의 소

리도 없지 않았다”면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승가의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을 안고 오늘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공약집에서 ‘일하는 비구니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듯이 11대 비구니회 집행부는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회칙을 제·개정하는 일에서부터 비구니스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공약 내용을 하나 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외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대승적 삶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새로운 회장 스님을 중심으로 능동적 활동을 통해 비구니 승가 역량 강화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 법회에는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장 범등 스님이 선학원 탈종 시도에 대한 성토와 설명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전국비구니회 임원진들이 결의한 결의문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에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가장 왼쪽이 11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 동국대 이사장 12월 19일 이전 선출

## 일면 스님 이사 연임, 직접 이사장 선출 연기 제안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의 이사 연임이 결정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11월 14일 은석초등학교에서 296차 이사회를 열고 일면, 성타, 수불, 보광 스님을 이사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사장 선출권은 폐기됐으며 12월 19일 안으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선출하기로 했다.

일면 스님은 일면 스님, 성타 스님은 성타 스님, 수불 스님은 심경 스님, 보광 스님은 미산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사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면 스님은 이사 선임 후 이사장 선출의 건을 미루자고 제안했으며 안건은 폐기됐다. 폐기 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차 이사회에 자동 상정되기 때

문에 개빙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개최 등으로 폐기 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현 이사장 임기는 일면 스님의 현 이사직 임기인 12월 19일까지로 동국대 이사회는 이이전 이사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 예정인 이사 삼보 스님(12월 19일 만료 예정, 월정사)과 명신 스님(임기 만료, 통도사)의 후임은 각 교구본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차후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제적이사 11명 중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안채만 이사와 일면, 심경, 미산, 성타, 삼보, 지홍, 호성 스님, 이연택, 김선근, 김기우 이사가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韓 전통산사, 적극적인 가치 개발 필요”

## 등재추진위, 11월 20일 2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의 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1월 20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불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한국의 전통산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교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사례를 제시하고 한국의 전통산사가 지닌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교수에 따르면 역사성을 계승한 사찰은 부석사와 봉정사로 이들 사찰은 7세기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수행과 신앙의 종교적 기능성이 살아있음을 한국산사만의 특

성으로 제시했다. 선암사와 통도사는 진신사리 신앙과 계단의 계율정신이 살아있는 곳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한국산사 대부분이 자연친화적 입지와 경관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중국 “예산 투입이 사회적 이익으로” 구호레이 중국 정저우시 문화유산국 부

태국·중국 등 문화계 전문가 참여 각국 세계유산 개발·보존 현황 소개 자승 스님 “세계유산 수컷돌 되길”

국장은 ‘불교유산의 보호와 관리-소림사를 중심으로’에서 소림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예산지원을 예로 들었다. 구호레이 부국장은 한국 산사 또한 정부예산이 투입될 시 국민문화 창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국장은 “소림사의 경우 정부

예산 투입으로 무술기록, 서예 및 회화 수집 등의 확보와 호텔 및 식당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자원이 됐으며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얀마 “도시 확장 대비해 계획 세워야” 수수 미얀마 만달레이 기술대 교수는 ‘도시확장을 제한하는 방법’ 발제에서 최근 세계유산에 등재된 미얀마 고대도시 스리케트라를 예로 들며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계획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수 교수는 “미얀마의 경우 피이도시개발계획이 마련됐고, 푸고대도시 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관광자원화에 따른 교통발달과 도시확장으로 결국 유산 가치가 손상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태국 “무형적 문화유산도 등재 대상” 바수 포산안다나 태국 이코모스태국위 사무총장은 ‘태국의 세계불교유산’ 발표에서 현재도 남방불교 신행활동이 활발히 이어지는 태국의 세계유산이 오히려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바수 사무총장

은 “부처의 유골을 봉안했다고 여겨지는 왓 프라 보롬마랏 나론 시 탐미랏 사리탑은 불교신앙의 중심지로 지속 보존관리되고 축제도 매년 열린다. 이 같은 유무형 가치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한국역사 속의 불교 문화의 위상’, 노부코 이나바 쓰쿠바대 교수의 ‘일본의 세계불교유산’, 트란 딘 판 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국장의 ‘엔투 경관 지구 세계유산 등재 준비’ 등이 발표됐다.

한편, 2011년부터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전통산사는 범주사와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이며 이들 산사는 201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2018년 등재를 목표로 연구와 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미나에서 추진위원장 자승 스님은 “산사는 수행과 신행의 공간이자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이날의 자리도 또 하나의 수컷돌이 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nbul.com

# “한 위원장 피신, 지혜로운 해결 모색”

## 조계종 화쟁위 입장 발표… 중재 요청엔 유보적 태도

### “12월 초 퇴거 요청 사실이나” 보수단체 반대 시위도 이어져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이번 사태 당사자들을 만나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현재 수배 중인 한 위원장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10시 30분 경 조계사 경내로 진입한 후, 18일 조계사 및 화쟁위원회에 신변보호와 중재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범, 이하 화쟁위)는 11월 19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보호 및 중재요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쟁위는 “구체적인 한 위원장의 요청 내용과 각계각층의 내용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가며 당사자 및 정부 등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여러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조계사와 신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및 중재요청’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화쟁위는 “구체적 시기는 미정이나

한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현재 화쟁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조계사가 한 위원장 측에 12월 초까지 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해 한 위원장의 조계사 거취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계사 일대에는 한 위원장을 쫓아내라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 7개 단체는 17일과 19일 2차례 걸쳐 “조계사와 조계종이 한 위원장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범죄는 뇌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불교계 단체들은 “한 위원장을 보호하는 것은 불교 본연의 역할”이라고 맞선 상태다.


한편, 한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이 밝혀짐에 따라 일대에는 경찰들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수배령을 내렸다. 박익름 기자



“관법수행 통해 부처님 같이 살겠습니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15일 제 27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한마음선원 지원서 모인 5천여 신도들은 부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서원했다. 이번 수계법회는 대행 스님의 영상 법문 시청 후, 수계자들은 삼보를 청하는 청송을 통해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으로 수계를 증명할 것을 청하고 주지 혜원 스님을 계사로 모셨다. 또한 부산지원 설명수 보살은 수계발원문을 낭독 했으며, 광명선원 이영환 계사는 수계사 대표로 수계절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총 4천 560명이 수계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세계에서 칙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① 초6년 - 고3 재학
- ②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①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사과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②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시스님 추천자

**⑤ 문의처**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78 (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중의대 칙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